

낭만적 도시의 일상

Argenteuil Apartment

취재 이상진



시원하게 트인 창 너머 Saint Roch 교회의 돔이 보이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빈티지 및 컨템포러리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목재 헤링본 마루와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등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룬다.

파리의 낭만을 집 안 가득 들여온 Argenteuil Apartment는 다채로운 소재와 감각적인 가구로 예술 작품 같은 일상을 선물한다.

집은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공간으로 평범한 일상에 풍부한 자극을 전하기도 한다. 눈을 뜨고 잠들기 전 마주하는 독창적인 형태의 가구와 오브제 등이 마음을 가득 채워 예기치 않은 순간 색다른 아이디어를 전하는 것이다. 이에 창의적 활동을 하는 이들은 집을 아틀리에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파리의 텔리리 정원과 오페라 가르니에 사이에 위치한 Argenteuil Apartment는 시원하게 트인 창 너머 눈부신 조망과 실내의 빈티지 및 컨템포러리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복층 아파트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시에 예술적 미감을 드러내는 거주지를 원했던 예술가 부부를 위해 디자이너는 월넛, 오크를 비롯한 목재와 대리석,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소재를 넉넉하게 병치하고 아티스틱한 가구를 두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집을 완성했다.

Argenteuil Apartment의 1층은 거실과 주방, 욕실로 이루어졌으며 2층에는 침실과 개방형 구조의 홈 오피스가 있다. 먼저 거실은 목재 헤링본 마루를 깔아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두 층 높이의 벽을 가로지르는 아치형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와 공간을 한층 밝아 보이게 만든다. 또 창 하단을 따라 낮은 높이의 선반을 짜 맞춰 안정감을 주면서 T자 형태로 목재를 잇고 가죽 소파를 올려 일체감을 부여했다. 맞은편의 다이닝 테이블은 1970년대에 제작된 이탈리아의 빈티지 제품으로 석재 상판과 스테인리스 스틸 다리가 어우러져 간결한 실루엣을 이룬다. 거실 옆으로 이어지는 주방에는 아일랜드를 두어 중심을 잡았는데 흐르는 듯한 무늬의 Pele de Tigre 대리석에 세로 요철을 파 입체감이 느껴진다. 아일랜드와 나란히 선 욕실은 불투명한 유리로 창을 내 부스처럼 제작했다. 벽과 바닥, 욕조를 색이 바랜 듯한 검은색 장방형 타일로 아우르고 아르데코 스타일의 세면대를 두어 클래식하게 마무리했다. 거실과 주방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실이 내려다보이는 홈 오피스가 나타난다. 바닥을 유리로 시공하고 가느다란 스테인리스 스틸 난간을 돌려 가볍게 연출했으며 빛이 드는 불투명 창 앞에 날렵한 형태의 유리 책상과 목재 의자를 두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홈 오피스와 이어지는 침실은 오페라 가르니에를 향한 창을 마주 보고 침대를 배치해 풍경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다. 더불어 대각선으로 파인 침대 옆 벽 라인에 맞춰 오크 캐비닛을 제작해 틈새를 활용하는 동시에 빈티지 무드를 가미했다. ■



Design / Louis Denavaut
Location / Paris, France
Area / 70㎡
Photograph / Christophe Coënon



창 앞에 휴식 공간을 조성했는데 창 하단을 따라 선반을 짜 맞춰 안정감을 주면서 ㄱ자 형태로 목재를 잇고 가죽 소파를 올려 일체감을 부여했다.



다이닝 테이블은 1970년대에 제작된 이탈리아의 빈티지 제품으로 석재 상판과 스테인리스 스틸 다리가 간결한 실루엣을 이룬다.



거실과 주방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실이 내려다보이는 홈 오피스와 침실이 나타난다.



창을 마주 보고 침대를 배치해 풍경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게 했으며 대각선으로 파인 벽 라인에 맞춰 오크 캐비닛을 제작해 특색을 활용했다.



바닥을 유리로 시공해 가벼운 느낌을 준
홈 오피스. 빛이 드는 창 앞에 날렵한 형태
의 가구를 두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주방 아일랜드는 흐르는 듯한 무늬의
Pele de Tigre 대리석에 세로 요철
을 파 입체감이 느껴진다.



내장을 내 부스처럼 제작한 욕실은 색이 바랜 듯한
검은색 타일로 아우르고 아르데코 스타일의 세면
대를 두어 클래식하게 마무리했다.